

김혜순 시인이 세계에 쏘아 올린 한국詩

태평로

김태훈
논설위원



김혜순 시인은 김소월이나 정지용 처럼 국민이 애송하는 시인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쪽에 가깝다. 시집 '날개 환상통'으로 미국 평론가들이 수여하는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받은 걸 계기로 그의 작품을 접했다가 전이적인 시풍과 낯선 시어에 적잖이 놀랐다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서구 문화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시에 매혹돼 있었다. 이번 수상에 앞서 지난 연말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시집 5권'에 번역 시집으로 유일하게 포함됐고, 앞서 그해 7월에 하버드대 도서관이 T S 엘리엇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결정한 'T S 엘리엇 메모리얼 리드'의 초청 낭독회 대상으로도 선정됐다.

영국은 더 일찌감치 그를 주목했다. 10년 전, 우리 예술의전당에 해당하는 런던 시우스뱅크센터가 선정한 세계의 '위대한 사랑시 50편'에 그의 작품 '구멍(A Hole)'이 포함됐다. 앞서 런던에서 김혜순 시인을 초청해 낭독회를 열었고 이를 계기로 시집 '돼지라서 괜찮아'가 영국의 저명한 시 전문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됐다. 김 시인은 주로 여성성에 대해 쓰지

만 그의 작품 속 여성은 아름답지도 사랑스럽지도 않다. '날개 환상통' 속 여성도 '하이힐을 신은 새 한 마리/아스팔트 위를 울면서 간다/마스카라는 녹아 흐르고' 처럼 기괴한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림에 비유하자면 표정은 일그러지고 피부는 격렬한 붓터치로 거칠게 표현된 피카소나 드 쿠닝 그림 속 여성을 닮았다. 그러나 동시에 두 거장의 그림들처럼 독자를 오래도록 시앞에 붙들어 두는 힘이 있다. 뉴욕타임스가 '기괴하고 미래가 없는 상황 등

'날개 환상통' 美 문학상 쾌거 영국선 '위대한 사랑시'에 뽑혀 서구의 한국詩 관심 높아질 때 정부도 K 문학 세계화 지원을

양한 공포가 느껴진다'면서 '미학의 거시적이고도 미시적인 힘을 전달한다'고 격찬한 이유다.

요즘 미국과 유럽 문화의 대세는 한 마디로 탈(脫)백인이다. 오래되고 식상한 백인 위주 서사와 문체의식에서 벗어나 미국과 유럽 밖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 윤여정·스티븐 연·양자경 등이 아카데미와 에미상 시상대에 잇달아 오르는 것은 서구 주류 사회가 소수자 배려 같은 PC(정치적 올바름)에 끌렸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 보다는 그들의 고갈된 예술적 상상력을 아시아의 새로운 샘에서 찾았다고

보야 한다. 김혜순 시집에 대한 관심도, 몇 해 전 소설가 한강의 연작 소설집 '채식주의자'의 부커상 수상도 이런 흐름 속에서 이뤄진 것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했다. 서구의 높아진 관심을 한국 문학 세계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우리 문학의 저변도 탄탄하다. 시집 '날개 환상통'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 총서인 문학고지성 시인선에 포함돼 있다. 그 시인선이 최근 600호를 돌파했다. 창비시선도 500호를 넘어섰고 믿음의 시, 문학동네 시인선도 수백 호를 넘겼다. 시 총서가 수백 호씩 이어지며 발간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기형도 시집 '입속의 검은 잎'처럼 30년 넘게 사랑받으며 100쇄 가까이 찍는 시집이 나오고, 신문에 시가 연재되는 것도 외국 문인들은 놀라면서 부러워한다. 본지가 '현대시 100년 애송시 100편'을 연재할 때도 많은 독자가 시를 스크랩하고 암송하며 호응했다.

시집 번역도 활발하다. 문지 시인선만 해도 86권이 영어·불어·독어·일본어 등 세계 주요 언어로 번역됐다. 문인과 출판사, 번역을 지원해 온 한국문학번역원과 대산문화재단 등이 독자들과 함께 이룬 성과다. 다만, 이번 총서에서 쏟아진 많은 공약 중에 문학 진흥 공약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웠다. K 문학 세계화를 문인과 출판사들에만 맡길 게 아니다. 정부와 각 정당도 팔 걷고 나서야 한다.

김준의 맛과 섬 [185]

진도 간재미회무침



간재미는 흥어의 찰진 맛이나 삭힌 맛을 기대할 수 없다. 다들스럽게 식감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양념이나 손맛이 간재미의 맛을 결정한다. 여기에 어디에서 잡느냐도 중요한 요소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진도 간재미 맛 명소로 꼽을 만하다. 진도에서도 '서촌 간재미가 제일이지라'며 꼽는다. 진도 청룡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간재미를 비롯한 상어가오리, 흥어, 목가오리 등을 분류 학상 동일 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흥어'라고 명명했다. 널리 알려진 흑산흥어는 참흥어로 분류했다. 그래도 여전히 진도에서는 간재미, 태안과 서천은 갯게미, 웅진에서는 팔랭이라 부른다. 모두 흥어의 다른 이름이다. 이들 지역 공통점은 좋은 갯벌이다.

진도에서도 소포리, 수유리, 군내리, 둔전리 등은 갯벌이 좋다. 진도가 식량을 자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갯벌을 농지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농지뿐만 아니라 염전도 많았다. 지금도 진도, 진안, 해남 사이 시아바다는 펄이 좋고 조류 소동도 잘되는 최고 어장이다. 그 바다에서 잡는 간재미가 진도 서촌 간재미다. 겨울부터 봄까지 서해 다른 지역보다 이른 시기에 간재미를 잡는다.

잡는 방법도 다르다. 다른 지역은 그물이지만 진도는 생새우를 미끼로 낚시로 잡는다. 일반적으로 어가를 매길 때 그물로 잡은 것보다 낚시로 잡는 것을 더 쳐준다. 수백 미터 긴 줄에 100여 개의 낚시를 매달아 잡는 '간재미 주낙'이다. 또 진도의 토질은 파·마늘·깨 등 양념 채소 농사에 알맞다. 여기

에 남도 어머니를 손맛까지 더해져 간재미회가 만들어진다.

반찬으로 목이버섯무침, 시금치무침, 어리굴젓, 백김치, 묵은 김치, 토란대나 물이 올라왔다. 이 정도 반찬을 올려야 진도에서 밥 장사를 한다. 비교 불가다. 진도 사람들이 오일장에서 '어디 간재미요? 서촌 간재미요?'라고 물어보고 산다. 서촌 간재미가 다 팔려야 다른 간재미가 팔린다. 간재미회무침은 진도 울금막걸리와 궁합이 좋다. 흥주까지 탐하면 진도에서 하룻밤은 머물러야 한다. 맛에 빠져 일어나지 못하는 얇은뱅이 술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오늘 총선 '내 편, 네 편' 아닌 정책과 후보 자질로 판단을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이후 2026년 지방선거까지 2년 넘게 전국 선거가 없다. 오늘 결정되는 민심의 무게추가 상당 기간 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식을 달라"고 했다.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각각 '이재명·조국 심판'과 '윤석열 심판'을 내세웠다. 심판권이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심판은 과거로 향하는 것인데, 선거는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 도전을 맞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나라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각종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고금리, 고물가라는 어려운 현안을 풀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속에서 국가적 활로를 찾고 북의 위협에도 대처해야 한다. AI(인공지능), 반도체·배터리 등 미래 성장 동력을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에도 국가 총력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총선만큼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저질 네거티브와 막말·위선이 기승을 부린 선거도 드물었다. 역대 최악의

저질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여야 모두 위성정당 폐지 공약을 어기는 것으로 선거전을 시작했다. 그 결과 위헌 정당 심판을 받고 해산된 당이 되살아나고,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당을 만들고 출마해 길이가 51.7cm나 되는 역대 최장 투표용지가 만들어졌다. 각 당이 공천한 후보도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을 말하면서 뒤로는 자신과 가족의 사익을 챙긴 후보, 상대 당과 후보를 비난하며 서슴없이 막말을 하는 후보, 확인되지 않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성적 비하 발언을 일삼는 후보, 자질 문제로 공천이 취소됐는데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등이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투표는 해야 한다. 오늘 투표로 앞으로 4년간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도 정해진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는 유권자가 많다. 현실적으로 지지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 선거는 후보자에게 하는 투표다. 후보가 살아온 과정, 그가 내세운 공약의 현실성 등을 살펴보고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져 내 편이면 무조건 지지한다고 하지만 오늘날만큼은 정책과 후보 자질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순조로운 독자 정찰위성 확보, 안보의 중요한 이정표

우리 군이 지난 8일 발사한 정찰위성 2호기가 우주 궤도에 정상 진입해 교신에 성공했다. 몇 개월간 운용 시험 평가를 거친 뒤 대북 감시·정찰 작전에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발사한 1호기와 다른 점은 고성능 영상 레이다(SAR)를 탑재했다는 것이다. 전자광학(EO)·적외선(IR) 촬영 장비를 실은 1호기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지만 구름이 끼는 등 악천후엔 성능이 제한된다. 반면 전자파를 사용하는 SAR은 날씨나 주·야간 할 것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 군은 내년까지 이런 SAR 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군이 정찰위성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함이다. 200대에 가까운 북 미사일 발사대의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정찰위성 외에 확실한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자산은 군사분계선 부근 상공에 띄우는 금강·백두 정찰기와 무인기 등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2018년부터 작년까지는 9·19 남북 군

사 합의에 묶여 제대로 운용하지 못했다. 사실상 미국의 정찰위성과 전술 정찰기들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군은 이것을 '한미 연합 자산'이라고 불렀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미군 정보를 귀동냥해 온 것이다. 전시 작전권 전환 역시 우리 군의 독자적 대북 감시 정찰 능력 없이는 어불성설이다.

이제라도 정찰위성을 확보하게 된 건 다행이지만 5기가 모두 작전 배치돼 대북 감시 주기는 2시간 수준이다. 유사시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수십, 수백 발 발사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 당국은 2030년까지 초소형 SAR 위성 약 40기를 발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면 감시 주기는 30분 간격으로 준다. 북한도 한미의 탐지·요격망을 피하기 위해 끝물하겠지만, 촘촘한 정찰 위성망을 구축하고 독자적 고고도 정찰 드론을 확보하면 실질적인 대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 순조로운 대북 정찰위성 확보는 우리 안보에 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화영 재판서 "이재명은 무죄" 외친 변호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가 1심 최후 변론에서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이 2019년 당시 이 부지사가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도 안 됐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 변론해야 할 변호인이 이재명 대표부터 무죄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일부 방청객들이 큰 소리로 박수를 치다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목적이 이 대표 방탄이란 사실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1년 6개월을 끌어온 이 재판은 처음부터 희한한 일의 연속이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자 운동권 출신인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친 뒤 변호인이 교체됐다. 이어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고, 변호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는 등 갖은 재판 지연 시도를 했다. 명백한 사법 방해였다. 그러다 변호인이 이화영씨 1심 결심(結審) 공판에 나와 "이재명은 무죄"라고 외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둘뿐이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자금 밀반출을 다 인정했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명수증(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2019년 북측 인사가 이 대표 방북에 벤츠나 헬리콥터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으나 300만 달러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런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다 지어낼 수 있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맡았던 사람은 이화영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뒤 재판 기록과 증거 자료를 이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변호사들이 이런 일까지 하는 것은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측근들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줄줄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



동영상 시청

4.10 총선
결판의 날

총선 아침에 본다, 천안함 용사 막내딸 편지 영상

4.10 총선, 김해봄 양 멋진 마음 풀어줄 수 있을까

용사들 명예 지킬 대한민국 운명, 오늘 선거에 달려있다 | 천안함 괴담 전문꾼들, 21대 국회에 득서글 | 22대 국회, <천안함 괴담 방지 특별법> 만들 수 있을까

뉴데일리
newdaily.co.kr

조희수 1천만 넘는 편지

뜨거운 눈물이 솟는다. 3월 22일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9 서해 수호의 날>.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 가운데, 천안함 호국영령 고(故) 김태석 원사의 딸 김해봄 양은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국가 보훈부> 인스타그램에 릴스 영상으로 오른 이 편지는 오늘 4월 10일 현재, 조회 수 1000만을 넘나들었다. 이런 국민적 파장(波長) 자체가 또 하나의 감동으로 우리 가슴에 와닿았다.

"이 봄, 아با와 함께 활짝 피어날게"

"아바 벌써 봄이네. 고등학교 졸업식 때 친구들이 아바와 같이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데 아바 생각이 나더라. 고마워 아바. 아바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아바를 존경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줘서"

"이 따뜻한 봄에 아바와 함께 활짝 피어날테니 날 꼭 지켜봐 줘. 꽃이 많이 핀 날, 아바의 빛나는 봄, 햇살 같은 내가 꼭 소식처럼 찾아갈게."

아바의 젊고 멋진 인생 닮은 자랑스러운 아바의 막내딸이 춤추듯 고백하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개개인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인 모두는 저 딸의 애뜻한 고백에 온몸을 들먹이며 함께 흐느끼고 가슴을 쳤다.

해봄 양 마음에 누가 돌을 던지나

누가. 이한(伊韓)과 그리움과 연민과 소망에 찬물을 끼얹고 재를 뿌리려 하는가?

저들은 말한다.

- ★ "1년 어뢰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언론의 집단적 담합은 무엇인가?"
- ★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모든 언론은 가짜다."
- ★ "천안함 피격은 안보 실패(이군 잘못)의 가장 치참한 사례다."
- ★ 아군 기뢰를 건드려 폭파되었다.
- ★ "(최원일 함장은) 무슨 낱말로 그런 얘기를 하나, 부하들 다 죽이고"
- ★ "군인이라는 경계에 실패하거나 침략당한 책임도 있다."

음모론자들은, 피격 당시에도 각종 <괴담>을 날조하고 배설했다.

- ★ 천안함은 암석에 좌초(坐礁) 했다.
- ★ 모래톱에 걸렸다.
- ★ 함정의 금속이 피로로 침몰했다.
- ★ 함께 훈련 중인 동맹국 잠수함과 충돌했다.

[5.18 입몰막비] 있는데, <천안함 괴담 방지법>은?

이성우 <천안함 46 용사 유족회> 회장은 말한다.

"백일 때 아버지를 여윈 유자녀가 중학생으로 자랐다. 우리 사회가 용사들의 명예라도 지켜줘야 하지 않나? 22대 국회는 <천안함 괴담 방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당연하다!

그 전에, 용사들을 모독한 <괴담 전문꾼들부터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과하라! 자유인들도 자성하고 자문(自問)하자! 우리는 자들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 있었나?

해봄 양 더 아프게 하지 않는 판 짜여지길

오늘은 4.10 총선의 날. 그러나 총선 행사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적(敵)을 알아보는 눈이다. [적을 알게 해 준 용사의 딸 김해봄 양에게 이문세의 노래를 들려준다.]

"라일락 꽃향이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 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찬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이명종 칼럼: 총선 아침 생각 '자유가 사라질 수 있다'

[추진력] 박(국)연대 성공하면, 대한민국 사라지고 <이코조선> 등장한다

이동복 칼럼: 김정은에게 간첩 USB의 정체

문재인, 유방나게 유세 다니는 이유... 김영주 자유민주당대표가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4월 8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84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